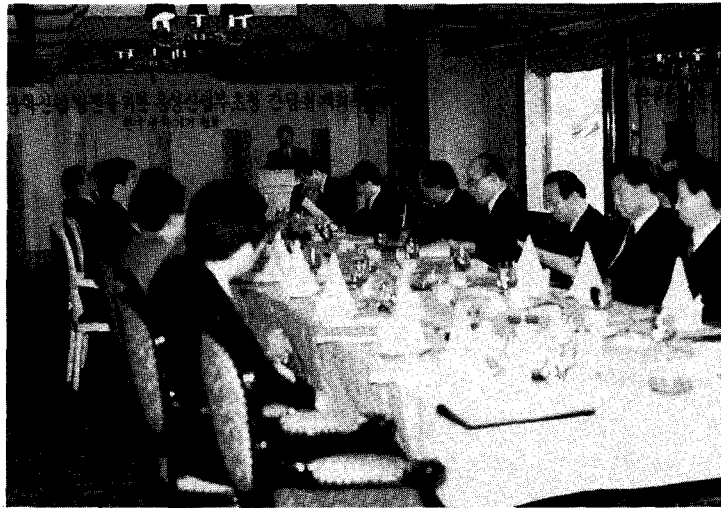


한국광학기기협회, 광학산업 발전을 위한 통상산업부 초청 간담회 개최



▲ 한국광학기기협회는 지난 3월 2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광학산업 발전을 위한 통상산업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광학기기협회는 지난 3월2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광학산업 발전을 위한 통상산업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있는 간담회에는 통상산업부 산업기계과 성재동 과장과 홍구학 사무관 그리고 광학기기협회 회원사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 △ 광학산업의 현황과 중점 추진과제,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조정 홍보, △ 광학업계의 공통 관심사항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 통상산업부 산업기계과 성재동 과장, 홍구학 사무관, △ 한국광학기기협회 홍계인 전무, 김영균 부장, △ 동원정밀(주) 강병원 부사장, △ 두산상사(주) 조종대 차장, △ (주)롯데 캐논 김대곤 본부장, △ (주)브이·텍 박경복 전무, △ 부원광학(주) 박춘봉 사장, △ 삼성항공산업(주) 반창모 이사, △ 서울광학산업(주) 김정환 상무, △ (주)신도리코 이성근 전무, △ C.K산업 이병극 사장, △ 아남정공(주) 윤석중 부장, △ 우경전광(주) 정사근 이사, △ (주)이오테크닉스 성규동 사장, △ 코리아제록스(주) 정광은 상무, △ 한광산업(주) 박용경 전무, △ 한국 광학기술개발(주) 이원승 사장, △ 현대전자산업(주) 문영기 이사, △ 해성산업 이을성 사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광학산업 발전을 위한 통상산업부 초청 간담회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편집자 주-

흥제인 전무: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간담회에 많은 회원사 대표 및 임원분들이 참석해준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내 광학산업 발전을 위해 흔쾌히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통상산업부 산업기계과 성재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되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간담회를 시발로 앞으로도 광학산업 종사자들의 의견 교환의 기회를 자주 마련할 것이며, 참석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편, 오늘 이 자리는 정부에 대한 광학업계의 무조건적인 요구보다는 기업 및 국내 광학산업 발전을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의견교환 및 대정부 건의를 하기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참석자 여러분들은 산업기계과 성재동 과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한국광학기기협회 김영균 부장의 '광학산업 현황과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마련될 질의응답시간에 다양한 건의사항을 적극 발표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통상산업부 산업기계과 성재동 과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재동 과장: 광학산업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저는 첨단산업

의 하나인 광학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업계가 겪고 있는 당면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을 참석자 여러분들과 더불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련된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과 정부정책 및 정부에 대한 바람사항이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며, 산업기계과에서는 광학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영균 부장: 광학산업의 최근 현황과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학기술은 첨단기술산업으

로써 기계 및 전자산업분야에서 그 응용범위 및 파급효과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광전자, 광정보, 광통신분야의 광학 관련제품들이 선진국을 위주로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선진국과의 기술 및 품질측면에서는 근접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 등 경쟁국과 비교해볼 때, 가격 경쟁력면에서 다소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조립이나 연마, 가공 등 노동집약적 기술특성이 강한 중소기업의 부품산업은 경쟁국에 밀리고 있으나 고배

〈표 1〉 광학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억\$)

구 분	'93년	'94년	'95년	'96년 전망	연평균 증가율
세계시장	492	520	550	590	6.2%
국내 시장	8.8	10.5	12.4	15.0	19.5%

〈표 2〉 국내 광학제품 수출현황 및 전망

(단위: 백만\$)

		'93년	'94년	'95년	'96년 전망	연평균 증가율(%)
공 급	생산(A)	880	1,050	1,240	1,500	19.5
	수입(B)	741	1,111	1,520	2,000	39.2
계(C)		1,621	2,161	2,760	3,500	29.2
수 요	내수(D)	1,285	1,709	2,180	2,750	28.8
	수출(E)	336	452	580	750	30.7
수출비율(%)EA		38.2	43.0	46.8	50.0	
수입의존도(%)B/C		45.7	51.4	55.1	57.1	

특별기획

을 카메라, 콤팩트 쌍안경 등 일부 기술집약적인 제품들은 해외시장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광학시장은 카메라, 복사기, 현상기, 쌍안경, 현미경,

렌즈 등 전통적인 광학기기 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카메라, 복사기 및 쌍안경은 점차적인 경쟁력 확보 및 생산 규모 증가로 수출산업화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

나 광정보, 광통신분야는 아직 기술개발 및 투자단계에 있고 광계측, 제어 및 의료기기분야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레이저 및 응용기기는 국산화 개발단계에 있는 실정

〈표 3〉 주요 품목별 경기 동향

(단위 : 금액, 백만원, %)

구 분			'94년	'95년	전4 년대비	'96년 전망	전년대비
카메라 수량: 천대	생 산	수 량	1,988	2,544	28.0	2,780	9.3
		금 액	191,395	223,980	17.0	253,000	13.0
	내 수	수 량	525	712	35.6	790	11.0
금 액		87,697	113,380	29.3	123,000	8.5	
	수 출	수 량	1,323	1,763	33.2	2,120	20.2
		금 액	94,431	128,580	36.2	150,000	17.0
복사기 수량: 대	생 산	수 량	164,489	162,174	△1.4	178,900	10.3
		금 액	241,894	235,330	△2.7	258,200	9.7
	내 수	수 량	84,157	92,940	10.4	102,400	10.2
금 액		164,491	177,930	8.2	196,250	10.3	
	수 출	수 량	79,201	79,281	0.1	87,600	10.5
		금 액	69,340	76,750	10.7	88,260	15.0
현상기 수량: 대	생 산	수 량	1,302	1,542	18.4	1,670	8.3
		금 액	29,500	35,400	20.0	37,500	6.0
	내 수	수 량	1,084	887	△18.2	890	0.3
금 액		30,300	27,790	△8.3	28,200	1.5	
	수 출	수 량	153	533	248.0	610	14.4
		금 액	3,000	8,770	192.0	10,500	20.0
쌍안경 수량: 천대	생 산	수 량	976	1,134	16.2	1,170	3.2
		금 액	24,300	25,910	6.6	27,000	4.2
	내 수	수 량	134	160	19.4	170	6.2
금 액		4,900	4,370	△10.8	4,560	4.3	
	수 출	수 량	855	957	11.9	950	△0.7
		금 액	20,100	22,270	10.8	22,240	△0.1
렌 즈	생 산	금 액	14,500	16,500	13.8	18,430	11.7
	내 수	금 액	4,500	7,210	60.2	8,900	23.4
	수 출	금 액	9,600	10,370	8.0	10,900	5.1

자료 : 한국광학기기협회

입니다.

한편, 주요 광학제품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 <표3>과 같습니다.

한편 올해 국내 광학기기업계에서는 △주요 업종별 기술개발 및 부품 국산화를 촉진하고, △국산개발 대상품목(수입선 다변화 품목) 핵심부품 국산화, △자본재산업 육성, △부품 표준화(공용화), △국내 외전사회 개최 및 참가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협회에서 국내광학업계를 대상으로 조사, 집약한 업계 공통애로 및 건의사항으로는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제도 유지, △광학유리, 소재 국산화 및 프레스 가공공장 설립 추진,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병역특례 지정업체 추천기준 개선, △첨단기술산업 및 자동화 관련설비 도입시 관세 감면, △복사기업계 사적복제 보상금 도입에 따른 대응, △광학기기 구매시 국산기계 구입자금 융자대상 지원이 있습니다.

성재동 과장 : 광학업계의 공통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다변화제도 유지' 부분과 관련, 우리 입장에서는 '국내산업 보호'란 차원에서 이 제도가 유

일한 장치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를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외적인 환경 변화로 이 제도의 계속적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기본방침은 '98년까지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절반을 해제하겠다'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하지않겠느냐'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카메라, 복사기, 현상기는 '89년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고 또한 가능한한 유지되는 쪽으로 최선을 다 하겠지만, 이러한 품목 내에서도 규격별로 부분 해제가 있을 것으로 보며, 이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학유리, 소재 국산화 및 프레스 가공공장 설립 추진' 건과 관련해, 이는 가능하면 관련업계의 자율적인 모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산화 수요 확대를 위한 여러가지 지원제도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병역특례 지정업체 추천기준 개선' 과 관련한 제안에 대해서는 '96년도 상반기 매출액 기준은 어렵겠지만, '95년 실적'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첨단기술산업 및 자동화 관련설비 도입과 관련한 관세 감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에 보면 첨단산업 대상 안에 첨단산업 업종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또한 그 첨단산업에 광학산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감면 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시설재에 대해서는 수시로 대상품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몇년 이내에 새로운 설비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복사기업계 사적복제 보상금 도입에 따른 대응'과 관련, 복제보상금 부과제도 추진은 사회통념상 법적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며 부처 협의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학기기 구매시 국산기계 구입자금 융자대상 지원'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광학기기류를 융자대상 품목으로 그 범위를 넓히고 또한 한국광학기기 협회를 품목 확인 기관으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부사장 : 수입선다변화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카메라를 생산하는 기업은 3개사가 있는데, 국내 유통시장은 카메라 수입

품에 대해 거의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펜탁스 카메라만 하더라도 어떠한 모델의 구입이 가능하고 여행자들이 여행 후 갖고 들어오는 것 중 한개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근처에 와서는 관광공사가 공항에 직접 면세품숍을 만들어서 카메라를 판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카메라를 수입선다변화 품목으로 묶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나중에 수입선다변화 품목 중에서 해제가 되었을때, 지금 현재의 유통구조로는 일본이 계획하고 있는 '한국내 100%의 유통회사 설립'에 방어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내산업 보호 차원에서 수입제품의 국내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으나, 이것을 시기적으로 보아서 품목별 부분적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재동 과장: 수입선다변화 해제문제에 대해서는 건의내용에 새로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새로운 품목을 지정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이 계속해서 수입되고 있는 현실적인 유통문제에 대

해서는 잘은 모르겠으나, 다만 다변화품목으로 묶어둠으로써 조금이라도 국내산업에 플러스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일본의 카메라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대리점망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최소한의 바람막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기에 이 제도를 존속시키는 것입니다. 어떠한 품목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카메라나 캠코더 등은 휴대가 가능하고 여행자들이 쉽게 갖고 들어올 수 있는 품목입니다.

수입선다변화제도를 가동함으로써 얼마만큼의 수입 제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량수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국내산업 피해는 이러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으리라 보고, 그 필요성 때문에 지금까지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어떤 것이 우리업계의 공통적인 견해인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검증을 해보겠습니다만, 적어도 광학기협회로부터 받은 요청은 업계 전체의 전반적인 공통의견으로 보기 때문에 다변화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 부분적, 점진적으로 해제하자'는 업계의 의견에는 어느정도 동감합니

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광학기협회가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원승 사장: 저는 현재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공통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기술개발이 살 길이라 해서 각 회사마다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신제품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실제 제품화가 완료되어서 팔리는 제품은 많질 않습니다. 우리회사에서도 광응용기기 등 많은 제품이 사장되고 있어 이에 대한 마케팅을 해보려고 컨설팅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해보았더니 경비가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소요되어 부담이 큰 관계로 주저하다 시간이 지나 사장시키곤 했습니다.

마케팅방법과 컨설팅 비용 부담이 중소기업에게는 큰 애로사항인데, 이 점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준다면 중소기업들은 적은 비용으로 마케팅플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기술개발도 더욱 촉진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병역특례제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는 대부분이 병역특례연구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연구원들은 5년의 근무 의무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대기업쪽으

로 이직하거나 '그만 두겠다'는 상황입니다. 이와같이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인 연구인력이 일정기간을 근무하고는 빠져나가므로 인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병역특례연구원들에게 다른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개선방법을 마련,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차원에서라도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재동 과장: 지금까지는 통상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부부처가 여러가지 기술개발 내지는 국산화율을 위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의 대부분은 기술개발단계에서의 지원 그리고 개발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간접지원으로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원승 사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개척할 수 없는, 혹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있어주길 바라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부처간의 논의시 문제를 제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역특례연구원에 대한 개선방안의 하나로 우리

부에서는 병역특례연구원들의 근무 의무기간을 오히려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해보려는 안을 갖고 현재 국방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광학업계 관계자 되시는 분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보니 저와 견해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업계의 의견과는 달리 '현재 병역특례연구원들의 근무 의무기간이 길다보니 무수한 인력이 중소기업으로 가지않고, 같은 5년이면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려한다'는 점에 착안, 중소기업에의 근무 의무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고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중소기업들은 보다 많은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또한 자본재산업 개발로 인한 세제상의 혜택을 근무자들에게 부여해주는 문제도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쪽에 우수한 인력이 가야한다'는 필요성을 인식, 제도 개선을 통해 간접지원을 해야하고, 또한 기업에서는 병역특례연구원들이 '5년간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참석자 여러분들이 '병역특례연구원의 근무 의무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시니, 참고하겠습니다.

강병원 부사장: 대기업체에 '중소기업의 인력 스카우트를 자체 해달라'는 주위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재동 과장: 직업 선택의 자유는 개인의 기본권리로 제약해서는 않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강부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간접적으로 그 중요성이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강조가 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오는 5월경에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인력 스카우트 행위가 자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전국경제인연합회 스스로가 마련,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봉 사장: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수단으로, 흔히 자금 지원이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말로 자금 지원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얼마만큼 보탬이 되었나 하는 우려와 함께 이는 일시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기술지원은 중소기업 스스로가 해결해야될 문제이지 정부의 도움만 바라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정부에서 인력 분배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주는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려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데에는 별 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한편, 첨단산업의 하나인 광학산업중에는 대부분 중요치 않은 것이 없지만, 이중 렌즈와 소재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중요성을 인식, 적극 육성,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국내에서 쓰고 있는 초자의 국산화가 않되어 있어 이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관세가 8%로 되어 있고 연마된 렌즈, 프리즘을 수입하는데도 역시 관세가 8%로 되어 있어, 이부분이 불합리하다

고 생각하니, 이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재등 과장:제가 볼 때, 소재와 완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율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국산화된 소재라면 국내산업 보호 차원에서 관세를 강하게 부과할 수 있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이라면 관세율을 높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세율 조정시, 박사장님의 건의사항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계인 전무: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건의사항이 많이 남아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한정된 시간 관계로 오늘의 간담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참석과 관심을 보여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편, 오늘 이 모임을 계기로 앞으로는 업종별 의견 타진 등과 같은 방법으로 보다 효율적인 모임을 갖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참석자 여러분들도 국내 광학산업 발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시공간

후지포토살롱

구분	일정	전시회명	전시실
5월	4. 29 ~ 5. 4	"VARANASI" INDIA IMAGE (최영호 외)	충무로 후지포토 살롱
	5. 6 ~ 5. 11	"COLOR SPECTROM" 신상덕 개인전	
	5. 13 ~ 5. 18	한길포토라인(이종우 외)	
	5. 20 ~ 5. 25	윤성진 개인전	
	5. 27 ~ 6. 1	광고사진 7인전(김광부 외)	
6월	6. 1 ~ 6. 8	고요한 아침의 나라(김성옥 개인전)	
	6. 10 ~ 6. 15	"한국의 공간" 건축사진전(임정의)	
	6. 17 ~ 6. 22	사진집단(사실)전 (이석필 외)	
	6. 24 ~ 6. 29	김현중 "하늘에서 본 풍경"	